

광산구 안심자전거 보험 '개인형 이동장치' 확대

6월부터 보장 확대 실시 광산구 거주 모두 가능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운영 중인 안심자전거 보험이 6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광산구는 자전거는 물론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 내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으로 '광산구 안심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
이번 보험은 입원위로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진단위로금이 10만~50만원에서 20만~6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험 가입 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2024년 5월31일까지 1년이며,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업체 사업자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PM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

~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처리지원금 지원 등이다.
보험금 신청은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또는 광산구 명품길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규광산구청장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심자전거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도로, 주차 공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남구, 착한 가격 업소 41곳 지정

짜장면 3000원·냉면 5000원 공공요금 등 전폭 지원키로

광주 남구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착한 가격업소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공공요금 및 에어컨 청소비 등을 전폭 지원키로 했다.
남구는 7일 "지역물가와 서민생활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개 모집과 현지실사 과정을 거쳐 관내 착한 가격업소 4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착한 가격업소는 외식업 25곳과 이·미용업 10곳, 세탁업 2곳, 사진관 2곳, 목욕업 2곳이다.
특히 상당수의 착한 가격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은 눈에 띈다.

외식업 분야에서는 월산동 군분로에 위치한 중국음식점 평화루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을 3000원에 제공하고 있으며, 생삼겹 전문점인 벽옥에서는 후식냉면이 아닌 일반냉면 가격을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방림동 엄마밭분식 가게는 찌개 종류 음식을 6000원에 맞출 수 있고, 양림동에 소재한 담양 참숯 돼지떡갈비 가게에서는 떡갈비 백반을 7000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용 분야 착한 가격업소 10곳 가운데 6곳 업소에서는 최저 6000원에서 8000원가량을 지불하면 헤어 커트를 할 수 있으며, 관내 세탁소 2곳에서는 세탁료로 5000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방림동과 봉선동 소재 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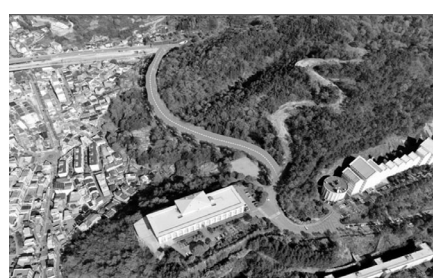
스튜디오와 복음사진관에서는 이력서용 소명함판 사진을 각각 1만7000원과 1만8000원에 촬영 및 인화할 수 있으며, 월산동에 위치한 대창온천과 정우사우나 업소에서는 각각 4000원과 6000원에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경영 안정화, 위생정결 관리를 위해 업소마다 1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에어컨 청소, 방역소독,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 관내 착한 가격업소 41곳에 대한 정보는 남구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상단 '생활정보' 메뉴를 누른 뒤 '산업경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주비 기자

동구 '지산동~조선대 우회로' 9일 개통식

42억 투입·주민 숙원사업 결실 '민·관·학 상생 모델' 구현 성과

광주 동구는 9일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현장에서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지산동~조선대 우회도로 개설사업'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 개통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지호로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산동~조선대 우회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42억6000만원을 투입해 총연장 545m, 폭 10m 규모의 지산동에서 조선대 교내를 관통하는 왕복 2차로 조성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착공 이후 약 1년 만인 지난달 준공됐다. 동구는 이번 도로개통으로 조선대 교내를 통한 도심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지산유원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동구가 9일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현장에서 '지산동~조선대 우회도로 개설사업' 개통식을 연다.

광주동구 제공

임택 동구청장은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한 이번 도로 개통은 전국에서도 드물게 조선대·지산동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낸 '민·관·학 상생 모델'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서구, 김초엽 SF작가 북 콘서트 13일 개최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생화학 전공자이자 SF소설가로 유명한 김초엽 작가가 광주 서구민을 만난다.
광주 서구가 오는 13일 오후 7시 서구청 들불홀에서 김초엽 작가 초청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김 작가는 2017년 '관내 분실'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작품으로 제

2회 한국과학문학상에서 대상과 가작을 동시에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할머니 과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우주 이야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출간 1년 만에 판매 10만 부를 돌파했고, 제43회 오늘의 작가상, 제11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며 문학계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북 콘서트는 서구 독서동아리 활

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허희 문학평론가가 사회를 맡아 김 작가와 SF문학,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독자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외에도 부대행사로 작가 사인회 및 도서 전시, 재즈밴드 '리페이지'의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다. 북 콘서트 참석 희망자는 광주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seogu.gwangju.kr) 및 상록도서관(062-350-4596)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혜인 기자

북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

광주 북구는 우산공영주차장 인근에 새롭게 건립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1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사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의 하나로 연면적 2천85㎡,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민원실, 자치도서관, 복지상담실 등이 들어서고 2층에 다목적실과 주민자치실이, 3층에 동대본부 등이 자리하며

4층과 5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오는 7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지역의 행정, 돌봄, 문화생활 수요를 반영해 복합 청사로 건립했다"며 "앞으로 구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